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중요한 모임에 참석차 길을 나섰는데 구두가 지저분하기 그지없다. 주변에 구두 닦는 사람도 없어 밖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두 눈에 요상한 신발 모양의 기계가 들어온다. 관심을 가지고 기계에 써있는 문구를 읽어보니 자동으로 구두를 닦는 거판 기란다. 눈이 휘둥그레져 기계 작동법에 따라 구두를 닦으니 2분여 만에 깨끗해져 나온다.

구두광택자판기를 가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일 것이다.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무인으로 구두 닦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소구력으로 작용한다.

에스엔비엔에스는 이런 구두광택자판기를 국내 유일하게 전개하는 업체이다. 과거만 해도 몇몇 경쟁업체가 있었지만 중도에서 하차하고 오직 에스엔비엔에스만 살아남았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자생존의 비결은 분명 남다르다. 에스엔비엔에스는 구두광택자판기 시장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과 열정,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시장성을 반전시켰다. 구두광택자판기 시장의 서광, 그 중심에는 에스엔비엔에스가 있다

구두광택자판기 시장, 서광 비친다

약전고투, 최고의 제품을 향한 그간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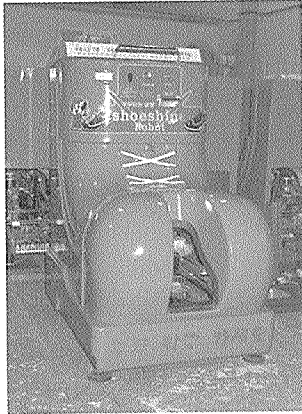
▲ 고진감래의 주역, 성봉석 사장

그간 구두광택자판기 시장은 참으로 어려운 시장이었다. 시장 창출도 어렵지만 자동으로 구두를 닦아 주는 품질 문제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을 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두를 닦는 메커니즘이 별개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모터만 돌려주면 되지 않냐고 우습게 보다 가는 큰 코 다친다. 구두 닦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구두광택자판기의 품질의 핵심은 광을 얼마만큼 잘 내야 하는 문제였다. 소비자를 만족시킬만한 구두광을 자판기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업체의 꿈이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만 한 것이 아무리 기계가 용을 써도 사람이 구두를 닦는 것만큼의 광을 내기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닦으면 정성껏 물광까지 낼 수 있는 마당에 기계가 이 영역을 추월하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결국 포커스는 사람이 닦는 만큼의 광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느냐에 맞추어 졌다.

에스엔비엔에스를 비롯한 경쟁업체들이 이 부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광을 어떻게 잘 낼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크림 구두약, 액체구두약을 원료로 구두를 닦아주는 시스템이 초기 시장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느 정도 광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줌에 비해 그 원료가 구두표면에 도포되어 코팅이 갈라지고 구두가 얼룩지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액체 구두약이 기계내부의 노즐을 막아 잦은 고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발생시켰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시장에서 먹힐 수가 없었다. 이 방식에 치중한 업체들은 품질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가 되기까지 했다.

에스엔비엔에스는 이러한 품질의 난맥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업체이다. 이 회사는 액체구두약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고체구두약을 사용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선택했다. 파라핀 성분이 많은 이 구두약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이 안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광에 있어서도 은은한 광을 내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에 문제가 없다. 적어도 사람이 닦는 것의 70~80%의 광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필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품질을 보완했다. 과거 제품에는 간혹 발이 꺾서 119까지 출동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판에서 발이 벗어나면 작동이 되지 않게 했다. 이런 경우 기계에라가 나도 앞으로 발이 전진 안하고 뒤로 빠지기 때

문에 안전하다.

이외에도 '슈샤인' 구두광택자판기는 치밀한 품질 보장을 통해 필드에서 높은 운영효율을 올릴 수 있게 했다. 두두약 공급량 및 잔량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인체 센서감지 음성안내 기능을 채택했다. 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형제품부터는 케이스를 오픈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다. 이럴 경우 내부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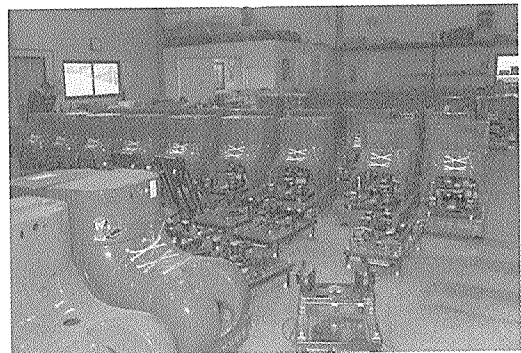
또한 제품의 상단에 광고판을 장착하여 LCD광고나 포스터광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두광택자판기 '슈샤인'이외도 먼지만을 빨아들이는 '슈 클리너' 제품도 구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작업화, 안전화, 골프화, 군화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상하좌우 4개의 강력 모터를 사용했고, 8방향회전, 5방향 진공흡입장치 등을 채택했다. 또한 자외선 살균장치, 안전장치, 휠타를 장착해 깨끗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사업확대의 전기를 맞다

에스엔비엔에스가 구두광택자판기로 사업을 시작한 때 지난 1999년부터이다. 그간 다양한 필드환경에 맞게 품질을 보완하느냐 고생도 많이 했다. 이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했지만 기대만큼 시장성이 따라주지 않은 점이 큰 애로점이었다.

에스엔비엔에스의 성봉석 사장은 "너무 어려워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은 순간도 많았었다" 며, "하지만 언젠



▲ 제품 생산라인



▲ 먼지만을 빨아들이는 '슈클리너'

가는 구두광택자판기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고 말했다. 시장성이 좋아져 큰 희망을 갖게 한 시기는 작년부터이다. 작년부터 소비자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필드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품질이 뛰어나고 운용효율도 높아지다 보니 운영대수도 빠르게 늘어났다. 지금까지 에스엔비엔에스가 보급한 '슈사인'은 300여대. 주로 관공소, 식당, 구치소, 주요소, 실내골프장, 안마시술소, 철도역 등지에 제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까지 제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유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지만 일부 주유소, 실내골프장 등의 로케이션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 무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유상으로 운영되는 곳은 유동인구나 고정인구가 많은 곳에 봐야 효과가 크다. 서울역 설치 로케이션의 경우 평일에는 5~7만원, 주말에는 10만원 이상의 매상이 오른다고 한다. 높은 운영 효율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제품 설치처가 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철도유통과 손을 잡고 서울 및 수도권 125개 역사에 제품을 설치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각 개별 역사에 2~4대씩 제품이 설치 운영이 되게 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제품이 잘 설치 운영이 된다면 전체운영 물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에스엔비엔에스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대의 큰 전기를 맞게 하는 빅 프로젝트이다. 각 역사에 제품이 설치 운영되게 되면 소비자 인식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확대가 원활히 이어진다면 '슈사인'의 사업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수출분야로도 호재가 보이고 있다. 직접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뛰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일본의 한 바이어가 홈페이지를 보고 국내로 와 수출상

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바이어는 일본에도 유사한 제품이 있으나 부피가 너무 크고 성능이 시원찮다며 '슈사인'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만족했다고 한다. 수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져 400만엔 규모의 수출을 진행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한다.

또한 멕시코도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이 되어 일부 샘플을 수출해 현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 한다. 미국 뉴저지 주에도 9대의 제품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적인 프로젝트들로 볼 때 올 한해는 큰 시장 특수가 예상이 되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생산라인을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할 상황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비로소 구두광택자판기 시장에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에스엔비엔에스는 계획한대로 제품이 본격 깔리면 기계단가 인하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의 제품 소비자 가격은 495만원. 이 가격대보다 인하를 진행하면 좀더 대중적인 수요처 확장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에스엔비엔에스는 유일한 구두광택자판기 시장의 생존자 단계를 넘어 이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최고의 경쟁력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구두광택자판기를 향한 식지 않은 열정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 서울역에 설치된 제품들

